



T  
M  
D


# String Quartet

어버이날 콘서트 -

**孝** 한없는 부모님 사랑  
[회]

바이올린 임혜련 *Yim, Hye Rhyun* 바이올린 최승아 *Choi, Seung Ah* 비올라 정수경 *Jeong, Soo Kyung* 첼로 정진아 *Chung, Jina*

2015 | 5 | 8 | Fri | 8pm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주최 **mast media** 비스트미디어 주관 공연예술극단 티엠디 

T  
M  
D String Quartet

PROGRAM

어버이날 콘서트 -

孝 한없는 부모님 사랑  
[호]

**Joe L. Alexander**

"CENTRIFUGAL FORCE" for the String Quartet

**Hugo Wolf**

(1860-1903)

"ITALIAN SERENADE" in G Major for String Quartet

**Franz Joseph Haydn**

(1732-1809)

String Quartet in C Major, Op. 76 No. 3 "EMPEROR"

I. Allegro

II. Poco Adagio Cantabile

III. Minuet Allegro

IV. Finale Presto

*Intermission*

**Antonin Dvořák**

(1841-1904)

String Quartet No. 12 in F Major, Op. 96 "AMERICAN"

I. Allegro ma non troppo

II. Lento

III. Molto vivace

IV. Finale: Vivace ma non troppo

# TMD String Quartet

Friday, May 8, 2015 at 8:00 p.m. Seoul Arts Center Recital Hall

## PROGRAM NOTE

### Joe L. Alexander

#### "CENTRIFUGAL FORCE" for the String Quartet

작곡가 Dr. Joe Alexander 조 알렉산더는 2014년에 작곡된 "Centrifugal Force"곡을 TMD 현악사중주에 헌정하였다.

그의 작곡 스타일은 표제음악(program music)이 아닌 절대 음악(absolute music)을 추구한다. 이 곡은 기본적인 세가지

스타일의 모티브를 주제로 한 단일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가지는 바이올린의 피치카토, 짧지만 서정적인 첼로의

모티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올라의 폰티첼로(활을 브릿지 가까이에서 쓰는 주법) 솔로가 주요 요소이다. 단일악장이지만 세 단락으로 구분 되어지는데

빠른 Allegro로 비올라의 글리산도에 연이어 바이올린들의 피치카토로 모티브가 시작되며 리타르단도의 긴 호흡으로 일단락을 맺는다. 두 번째 단락은

첼로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의 피치카토로 첼로의 Legato 모티브를 준비한다. 마지막 세 번째 Lento의 느린 단락은 폰티첼로의 회음을 바탕으로

비올라의 주제가 펼쳐진다. Allegro-Lento-Allegro-Moderato 마치 ABA형식에 coda 부분을 마지막에 삽입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에서 투바교수로 재직하며 음악이론, 작곡을 가르치고 있다.



### Hugo Wolf

#### "ITALIAN SERENADE" In G Major for String Quartet

슈베르트, 슈만을 계승한 최대의 가곡 작곡가로 유명한 후고 볼프는 낭만시대를 대표하는 Lieder로 오스트리아 작곡가이다.

독학으로 바하, 바그너 등 대가의 작품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다양한 독일 문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다른 나라의 문학을

공부하여 조예가 깊었다. 그의 가곡형식은 시의 내용에 따라 자유분방하며 피아노부는 반주의 영역을 넘어 선율과

유기적으로 깊이 결합되어 있다. 300여 편의 가곡 외에 가극, 기악곡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다양한 작품이 전해진다. 오늘 연주되는 "이탈리안 세레나데"

현악사중주는 가곡형식으로 유명한 곡이다. 볼프는 이 곡을 현악사중주로 1887년에 작곡하였으며 1892년에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완성하였다. 사장조의

단일악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세부분과 코다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있다.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것이 특징이며 제바이올린의

싱크로페이션으로 연결된 주제(theme)가 이 곡의 긴장감을 더해준다. 각 연결구는 그 첫 번째는 조성의 변화로 두 번째는 recitative 강렬한 첼로 솔로

그리고 마지막은 서정적인 비올라의 역할분담을 하여 진행하였다. 짧은 코다를 더하여 곡의 마지막을 알린다.



## Franz Joseph Haydn

### String Quartet in C Major, Op. 76 No. 3 "EMPEROR"

18세기 후반의 빈 고전파 양식을 확립한 작곡가 하이든은 100곡이 넘는 교향곡과 80곡 이상의 현악 사중주를 작곡했다.

2악장에 오스트리아의 국가인 '신이여 황제를 보호하소서'(Gott erhalte Franz den Kaiser)의 선율이 사용되었기에 '황제'

라는 주제로 유명하다.

제1악장 Allegro 다른 사중주곡의 1악장에 비해 무게감이 덜하고 찬란하고 밝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제2악장 Poco Adagio, Cantabile '황제 찬가'의 선율을 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주제로 바탕으로 한 네 번의 변주를 하는데 각 변주곡들은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2세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듯 경건한 분위기로 가득하다.

제3악장 Menuetto Allegro 프랑스 궁정의 춤곡으로 다소 빠른 템포로 경쾌하게 연주된다. 주제는 비교적 간단한 멜로디이지만 음정의 도약을 통한 생동감을 준다.

제4악장 Finale Presto 도입부에서부터 강한 느낌을 주는 세 개의 코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이든은 시작 부분을 어둡고 격정적인 단조로 시작해 마지막 부분에서 밝은 장조로 마무리하며 오스트리아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Antonin Dvořák

### String Quartet No. 12 in F Major, Op. 96 "AMERICAN"

체코의 국민작곡가 드보르작의 대표적인 실내악곡 "아메리칸"은 그의 교향곡 "신세계로부터"와 같이 1893년 그가 미국체류 중에 작곡하였다. 이 곡은 체코의 독특한 민족적 정서가 음악 전체에 나타나며, 새벽을 알리는 짧은 서주로 시작하여 얼마 후 향토색 짙은 선율이 곡 전체를 지배한다.

제1악장 Allegro ma non troppo 사장조로 바이올린의 트레몰로와 첼로의 긴 음을 바탕으로 비올라의 솔로가 시작된다. 비올라의 제1주제는 5음 음계를 따른 민요풍의 리듬으로 변조되며 1악장 끝까지 나타난다. 제2주제는 바장조에서 라장조로 바뀌면서 집시적인 멜로디 혹은 고향을 그리는 향수에 젖은 선율로 제 1바이올린에서 보여진다.

제2악장 Lento 흑인 영가풍의 애수가 넘치는 가요 악장으로 제2바이올린과 비올라의 반복적인 리듬에 맞추어 제1바이올린과 첼로가 대화하며 노래한다.

제3악장 Molto vivace ABABA의 형태로 쓰인 스케르초 악장이다. 드보르작이 머물던 스피빌 근처의 숲을 산책하면서 들은 검정날개의 빨강새가 끊임없이 빠르게 지저귀는 소리를 이 악장에 활용하였다고 한다.

제4악장 Vivace ma non troppo 자유로운 론도형식의 춤곡으로 뛰어오르는 듯한 주제가 특징적이며 코랄풍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한다.



어 버 이 날 콘서트 -

# 孝 한없는 부모님 사랑

[호]

## TMD String Quartet

TMD 스트링 콰르텟은 Combined Arts Community TMD(구) 공연예술극단 TMD의 산하 앙상블로서, 각자의 분야에서 솔리스트와 실내악주자, 그리고 교육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주목받는 연주자들이 모여 창단되었습니다. 정통클래식 뿐만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는 진보적 활동을 목표로 두고 다양한 융합공연을 통해 새로운 예술문화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예술앙상블로서 실내악 음악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 바이올리니스트 임혜련 (Yim, Hyaehyun)

- 미국 켄터키대학교 박사(DMA)취득 (전액 장학생)
- 미국 켄터키 렉싱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텍사스 아마릴로 시립관현악단, 랜들 챔버오케스트라 상임단원, 켄터키대학교 겸임교수, 시흥교향악단, GJ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 악장, M&P챔버 악장, 서울 내셔널 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역임
- 현) 하트공연나눔예술단대표, 브라이트 앙상블, TMD극단음악단장 및 앙상블 활동



### 바이올리니스트 최승아 (Choi, Seung Ah)

- 선화예술학교, 선화예고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및 New York University Performing Arts & Education 졸업
- NYU Performing Arts& Education 전문연주자 과정수료 Royal College of Music 수료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대진대학교, 재능대학 강사, 예가소사이어티 정단원 역임, 재능대학 강사역임
- 뉴욕 Merkin hall 초청연주, 뉴욕 Low theater, Blackbox hall 수차례 독주회
- 2008년 귀국독주회(금호아트홀)
- 현) 선화예중·고 출강, 성신여자대학교 박사과정, TMD 수석 활동



### 비올리니스트 정수경 (Jeong, Soo Kyung)

- 선화예고,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피바디 음악원 석사
- 알라바마 주립대학교 박사학위 취득(전액 장학생)
- 미국 미시시피-스타크빌 심포니 수석, 타스카루사 심포니, 콜롬버스 심포니, 원주시향 상임단원 역임
- 2014년 금호아트홀 귀국 독주회
- 현) 프렐리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CMK 오케스트라 수석, 함신익과 심포니송 상임단원, TMD 수석 및 다수 오케스트라 객원 활동, 선화예고 출강



### 첼리스트 정진아 (Chung, Jina)

- 미국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석사(MM) 졸업(전액 장학생) 및 박사(DMA)취득
- 미국 버지니아주 Radford 대학 최우수 교사상 수상
-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i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주미 오스트리아 대사관 초청 연주, 워싱턴 D.C Smithsonian International Gallery에서 재미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독주 연주
- 워싱턴 Korean Symphony Orchestra 단원 역임
- 현) 선화예중,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출강, New Life Foundation 첼로강사, TMD 수석 활동

TMD  
String Quartet

Friday, May 8, 2015 at 8:00 p.m.  
Seoul Arts Center Recital Hall